

#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지문학(地文學)의 도입 및 변화에 대한 연구

안중욱\*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Change of Physiography during the Late Period of Joseon and the Japanese Occupation era

Chong Uk Ahn\*

**요약 :** 구한말 및 일제 강점기에 ‘지문’은 보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 지리 과목 중 가장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던 계통지리 과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방 직후 중등 지리 과목인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의 교수요목과 구한말 및 일제 강점기 초기의 지문학 교과서 내용 간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지문’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대한제국과 조선총독부의 교육 관련 각종 법령 및 이에 포함된 중등교육 학과 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기 일본 학계의 지리학 정의에 관한 논의와 문부성의 교수요목을 비롯한 법령의 변화상도 함께 다루었다. 지문학 관련 내용은 1910년 무렵 일본의 중등학교 지리과 교수요목에서 ‘지문’이라는 과목명이 사라진 후에도, 인문지리가 더해진 ‘지리학통론’이나 ‘지리개설’ 등의 과목을 통해 고유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유지해 왔으며, 이와 같은 특성은 해방 직후의 중등학교 교수요목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지문(地文), 교수요목, 자연지리, 구한말, 일제 강점기, 중등교육

**Abstract :** During the late period of Joseon and the Japanese occupation era, ‘Physiography’ was a systematic geography subject that encompassed the most in-depth content among secondary geography subjects aimed at general education.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similarity between the syllabus of ‘Natural Environments and Human Lives’, a secondary geography subject right after Liberation, and the content of ‘Physiography’ textbooks during the late period of Joseon and the early Japanese occupation era. Next, this study dealt with the emergence and disappearance of ‘Physiography’ by focusing on education-related laws and the changes in the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of Korea. It also covered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of geography in Japanese academia and changes in the laws of Imperial Japan, including the syllabus. It can be seen that even after the subject name of ‘Physiography’ was removed from the geography course of secondary schools in Japan around 1910, its unique physical geography content has been maintained in subjects such as ‘General Geography’ or ‘Introduction to Geography’ with added the human geography. It was also found that the physiography content became part of the secondary school syllabus shortly after Liberation.

Key Words : Physiography, Syllabus, Physical Geography, the Late period of Joseon, Japanese occupation era, Secondary education

### I. 머리말

‘지문(地文)’ 또는 ‘지문학’은 현재의 학문 체계나 학교 교육에서의 교과목명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

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지문학’, ‘지문’, ‘지문지리학’에 대해 “예전에, ‘자연지리학’을 이르던 말. 지구과학 영역까지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예전에’라는 표현에서 용어 사용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hncu@kice.re.kr)

집작할 수 있다.<sup>1)</sup> 이처럼, 과거 우리나라 및 일본의 역사적 격변기에 등장했던 지문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용어가 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함께 사용되었던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지(地誌)’와 같은 용어들이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본격화되는 구한말 및 일제 강점기에 지문은 중등교육의 최고 학년에서 가르치던 교과목이었다. 즉, 전공 기반의 고등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리 과목 중 가장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문을 통해 당시 지리교육의 목적과 지향, 지리교육의 시퀀스에 대한 이전 사람들의 생각 등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현 지구과학교육계에서 지구과학의 전신이라는 관점에서 지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면우, 1997; 이면우·최승언, 1999; 이인순, 2011)은 지리교육사 측면에서도 소위 ‘원조’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1950년대 이후 지구과학의 등장과 변화가 현재 지리과의 스코프가 형성되어 온 과정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안중욱, 2016).

이 글에서는 중등교육 제도 내에서 지문이 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을 관련 법령 및 이에 포함된 일반 중등학교 학과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되, 필요시 유사한 수준인 사범학교 및 실업학교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기 일본 학계의 지리학 정의에 관한 논의와 일본 문부성의 교수요목을 비롯한 법령의 변화상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문 과목의 내용과 성격이 해방 직후의 중등 지리 과목인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수요목과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며, 나아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리과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초는 없는지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 II. 주요 선행 연구 분석

우리나라 지리교육계에서 지문학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개화기나 일제 강점기 지리교육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지문학 또는 지문을 언급하는 정도의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특히 아쉬운 부분이다. 개화기나 일제 강점기의 지리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지문보다 ‘지지에 대한 것이 많다. 이는 당시 초·중등 지리교육

이 국내·외 지역지리 위주인 관계로, 지지 관련 교과서가 많은 것과는 연관지을 수 있다.

지문학과 관련하여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지리교육계의 연구로 먼저 장보용(1971)의 일본 통치 시대 지리교육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는 한국 지리교육사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족 수난기 지리교육의 변천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선 총독부 편찬 ‘지문학교과서(1914)’와 관련해서 그 구조, 한국에 대한 실례 목록, 특징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서에 대해 ‘당시로서는 한국의 자연환경을 잘 설명한 우수한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있다. 권정화(1990)는 최남선의 지리 분야 저술과 근대 지리학의 도입 과정 관련 연구에서 지리학이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직전 일본 지리학의 태동을 이끈 것이 지문학이었다고 기술하며, 메이지 시대에 도입되어 학계와 교육계에 널리 영향을 끼친 일본 지문학의 성격과 도입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상준(1992)은 한국 교육사의 어느 때보다도 구한말 지리교과서들에서는 자연지리 내용이 중요하게 취급되었으며, 천문학적, 지문학적 내용을 포함한 자연지리 교육을 통해 합리적·객관적 자연 인식의 주체로 인간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지문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지리교육과 관련한 당시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과 다양한 교과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안중욱(2016, 105-143)은 현 지리교육과정의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해방 직후 교수요목기의 중등교육 최고 학년 과목인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의 전반기 구성이 이전의 지문과 관련되며, 1950년대 새롭게 등장한 ‘지학’은 천문학과 같은 지문 내용의 일부, 즉 당시의 ‘자연지리’ 내용 일부와 ‘박물’의 일부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 강순돌(2005)의 연구에서는 애국계몽기(1905-1910) 학보에 게재된 지문학 관련 기사 목록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리학의 정의와 분야를 다루는 과정에서 수리지리, 자연지리 등 지문학 구성과 내용에 대한 당시 필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구과학 분야의 지문학 관련 대표적 연구로는 이면우·최승언(1999)과 이인순(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면우·최승언(1999)의 연구는 영국의 지문학 발달 및 일본으로의 도입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지문학의 성립 과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국권피탈 직전 시기에 대한제국에서 출간된 3종의 지문

학 교과서를 소개·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인순(2011)의 연구는 지문학의 성격과 특징 등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면우·최승연(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1907년 민대식이 저술한 ‘신찬지문학’을 완역·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를 현 지구과학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 내용,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 등이 돋보이며, 이러한 점은 향후 지리학 및 지리교육계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연구 방법 및 방향성이라고 판단된다.

지문학의 도입·발전·소멸, 이와 관련한 지리학 및 지리교육의 정의·목적 등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연구, 그리고 관련 자료들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 중 199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학사편찬위원회와 동경지학협회(地學史編纂委員會·東京地學協會)의 지학사 관련 연구는 일본 메이지 원년인 1868년부터 1965년까지 대략 1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학문 및 교과목의 분화와 정립 이전의 지학, 지문학, 지리학, 지리교육 등의 변화 과정과 문헌 목록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일부 연구(地學史編纂委員會·東京地學協會, 1993; 2000)를 참고하였다. 이외 일본의 관련 연구들은 연구의 진행 과정 및 내용 기술 과정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소개 및 인용하고자 한다.

### III. 해방 직후 중등 지리과 교수요목과 ‘지문’ 과목의 유사성

해방 직후, 여느 교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지리과도 교과서의 준비가 매우 시급한 문제였다. 1945년 9월 ‘조선지리학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한 ‘대한지리학회’의 첫 사업이 중등학교 지리교수요목을 작성하는 것이었을 만큼(대한지리학회, 2016:69%),<sup>2)</sup> 교과서의 편찬과 학교 공급은 중요한 현안이었다. 해방 후 상당 기간 동안은 주로 지리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임시 교재들이 편찬·사용되었지만, 과도정부의 임시 잠인정 교과서를 거쳐,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46-1948년에 만들어진 초·중등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에 따라 편찬·검정된 지리교과서들이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강창숙, 2019).

1948년 12월 24일자로 발간된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문교부, 1948:2)’에 따르면, 중등학교 지리는

**표 1. 교수요목기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 부분 교수 사항 및 매주 시수**

학년	지리 부분	매주 시수
제1학년	이웃 나라 생활	2
제2학년	먼 나라 생활	2
제3학년	우리나라 생활	2
제4학년	인류와 (자연지리, 자연환경** 인문지리)	2
제5학년		1
제6학년	-	-

\* 이 밖에 선택 과목으로서 제4학년부터 제6학년 사이에 1년 동안 매주 5시간씩 ‘특수한 경제지리’를 교수함.

\*\* 교수요목 실제 내용 부분에서의 제목은 ‘자연 환경과 인류 생활’임.

출처 :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문교부, 1948:2)

학년별로 표 1과 같은 순서로 교수되었다.

이 시기의 학제에서 중학교 1-3학년은 현재의 중학교, 4-6학년은 현재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의 중등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현재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는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로 구성된 지역지리 과목을, 현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는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자연지리와 인문지리)’, 그리고 ‘경제지리’와 같은 계통지리 과목을 배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리 교과목이 중등교육 전기 지역지리(地誌) - 후기 계통지리로 구성되는 형태는 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교육과정의 구성에서도 나타나며(교육부, 2022. 12. 22.), 계통지리 중 주로 자연지리 내용으로 구성된 지문을 중등교육 후반부에 배치했던 100여 년 전 구한말 및 일제 강점기와도 유사성을 보인다(표 2). 다만, 이웃 나라 - 먼 나라 -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지리를 한국지리보다 먼저 배우는 것은 구한말 및 일제 강점기와는 다른 점이다.

해방 직후 교수요목에서 중등 전반기 지역지리 관련 학습 이후, 4학년과 5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에 대해 안중옥(2016:112-114)은 Geikie(1877)의 ‘Elementary Lessons in Physical Geography’ 및 조선 총독부 ‘지문학교과서(1914)’와의 유사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1948년 문교부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수요목의 자연지리 관련 5개 대단원의 주제(표 3의 굵은 테두리 표시)는 지구(혹성) 특성 - 육지 - 대기 - 바다 - 생물로 이어지는 지문학의 목차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표 3).

표 2. 중등학교 지리과 학과 과정(1906; 1921)

학교(급)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고등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1호, 1906. 8. 27.; 관보 제3548호, 1906. 9. 3.)	본국지리	외국지리	좌동	좌동/지문
고등보통학교규칙(시행 1921. 4. 11.)(조선총독부령 제54호, 1921. 4. 11., 일부개정)	일본지리	-	외국지리	지문

\* 1906년 고등학교령(칙령 제42호, 1906, 8. 27.; 관보 제3546호, 1906, 8. 31.)에 따라 이전의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함. 이는 일본에서 대학 예과 수준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던 구제(旧制)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통감부의 정책은 수업연한을 줄이고 조선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차단하고자 한 것임(한용진 등, 2010:43; 우리역사넷<sup>8)</sup>).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중등교육기관명이 '고등보통학교'로 바뀌었으며, 해방 전까지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 설치되지 않았음.  
출처: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표 3.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수요목, 일본의 '지문' 교수요목, 지문학 교과서 등의 목차 비교

문교부, 1948,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수요목	Geikie, 1877, Elementary Lessons in Physical Geography
<b>一. 지구</b> 지구와 태양계/ 지구의 실태/ 지구의 운동/ 지표의 도시(圖示) <b>二. 육지</b> 육지의 현상/ 육지의 변동(내적 영력, 외적 영력)/ 지형 <b>三. 해양</b> 해양의 현상/ 해수의 성질/ 해수의 운동 <b>四. 기후</b> 기온/ 바람/ 대기중의 습도/ 기후형(氣候型)/ 기후대와 기후구(氣候區)/ 기후의 분류 <b>五. 생물</b> 생물의 분포 <b>六. 인종 민족 지리</b> 인류의 발생지/ 인종 민족의 특징과 지리적 관계/ 인종 민족의 분포/ 언어 종교의 분포 <b>七. 인구 지리</b> 인구의 분포/ 인구의 밀도/ 인구의 증감/ 인구의 이동 <b>八. 취락 지리</b> 종류/ 발생/ 성쇠/ 형태 <b>九. 경계 지리</b> 농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통신을 포함) <b>十. 정치 지리</b> 국가의 형태 존재와 지리적 관계/ 국가와 발전과 지리적 관계	<b>I. THE EARTH AS A PLANET</b> The Earth's Form/ The Earth's Motions/ The Earth and the Sun/ Measurement and Mapping of the Earth's Surface/ A General View of the Earth <b>II. THE AIR</b> The Composition of the Air/ The Height of the Air The Pressure of the Air/ The Temperature of the Air/ The Moisture of the Air/ The Movements of the Air <b>III. THE SEA</b> The Great Sea-basins/ The Saltness of the Sea/ The Depths of the Sea/ The Temperature of the Sea/ The Ice of the Sea/ The Movements of the Sea/ The Offices of the Sea <b>IV. THE LAND</b> Continents and Islands/ The Relief of the Land(Mountains, Plains, and Valleys)/ The Composition of the Earth/ Volcanoes/ Movements of the Land/ The Waters of the Land(Spring and Underground Rivers)/ The Waters of the Land(Running Water-Brooks and Rivers)/ The Waters of the Land(Lakes and Inland Seas)/ The Waters of the Land(The Work of Running Water)/ The Frozen Waters of the Land(Frost, Snow, fields, Glaciers)/ The Sculpture of the Land <b>V. LIFE</b>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lants and Animals/ The Diffusion of Plants and Animals(Climatic, Migration and Transport, Changes of Land and Sea)
문부성, 1902, 일본 '지문' 교수요목 (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3호, 1902. 2. 6.; 관보 제5575호)	조선총독부, 1914, 지문학교과서 (고등보통학교 지리과용, 1922 증쇄본)
<b>총론</b> 태양계/ 지구의 모양, 크기/ 지구의 밀도/ 지열/ 지구의 운동, 晝夜, 四季, 일식 및 월식/ 경위도/ 표준시/ 지도 <b>陸</b> 沿岸線/ 지세 및 구조(산악, 原野, 谿谷 등; 泉, 河, 湖 암석 및 조암광물; 지층; 암맥; 지각 내의 산물, 즉 유용한 광물 및 암석)/ 변동(화산; 지진; 대륙과 산맥의 생성; 沿岸線의 생성; 대기; 水生物)/ 일본의 土地發育 <b>大氣</b> 성질 및 작용/ 온도/ 기압/ 바람/ 습기/ 기후 및 天氣 <b>海</b> 해수의 組織, 색, 염분 등/ 해저/ 해수의 온도/ 波, 해류, 潮汐 <b>생물</b> 분포/ 植物景	<b>I. 지구</b> 지구의 성인/ 지구와 달과 태양과의 관계/ 지구의 형상과 크기/ 지표의 측정/ 지구의 운동/ 지도 <b>II. 육지</b> 대륙과 섬/ 육지의 표면/ 육지의 변동(화산; 지진; 대륙과 나란한 산맥의 생성; 물의 작용; 공기의 작용; 생물의 작용; 지형과 기후)/ 지각의 구조 <b>III. 해양</b> 해저/ 해수의 온도/ 해수의 운동 <b>IV. 공기</b> 공기 중의 제 현상/ 공기의 온도/ 바람/ 공기 중의 수분/ 천기(天氣) <b>V. 地文과 人文</b> 지형과 인문/ 해양과 인문/ 기후와 인문/ 지문과 人力 <b>부록</b> 지구의 형상/ 생물의 분포/ 조선의 정오통지/ 지진계/ 해수의 성분과 색/ 산호초의 종류/ 대양 중의 深所

\* 안중옥(2016:112-114)이 제시한 자료를 일부 수정 및 교체, 보완함.

출처: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Geikie(1877)의 책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지문학 교과서가 그 체계를 따르고 있을 만큼(이면우·최승언, 1999), 영향력도 컸다(권정화, 1990). 寓士谷孝雄의 번역서는 중학교·사범학교용 교과서로 문부성 간행 기록이 있으며(地學史編纂委員會·東京地學協會, 1993),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지문학교과서(1914)’의 구성도 Geikie(1877)의 책과 유사성이 높다.

일본의 지문학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앞선 시기에 대한 기록은 개항 직후인 1855년 나가사키에 개설된 해군 전습소에 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해군전습소에서는 네덜란드에서 파견된 교관단 중 Ridder Huijessen van Kattendijke(1816-1866)가 지리학과 지문학을 주당 2시간씩 교수했다고 하며, 당시 수업을 받은 内田正雄은 이후 메이지 초기에 세계지리 관련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輿地誌略’을 저술하기도 하였다(中川浩一, 1975; 地學史編纂委員會·東京地學協會, 1993). 이후 메이지 시대부터 지문은 일본의 중등학교와 사범학교의 주요 지리 과목이었으며(地學史編纂委員會·東京地學協會, 2000), 식민지 조선의 중등교육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

해방 이후까지도 거의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다는 점에서, 지문학은 적어도 반세기가 넘는 동안 중등교육 후반기에 학생들이 배웠던 지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나 일본의 근대 교육 초기, 즉 근대 학문과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정착화되는 시기의 중등교육 분야에서, 지문학의 내용이 지리 교과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문학의 종합 학문적 성격이다. 지문학에는 (우주에서) 혹성으로서의 지구, 지구를 구성하거나 둘러싸고 있는 육지, 해양, 대기, 그리고 이 요인들로 인한 생물의 분포 등 ‘지구’라는 공동 체제에 대한 여러 관심 영역들이, 각기 독자적인 학문 체계로 심화·체계화되기 이전의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적절한 형태로 종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문학이란 당시의 여러 학문을 통합해 지구 전체를 시스템으로 파악하려는 학문(矢島道子, 2008)”, “인류 거주지로서의 지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권정화, 1990)”라는 정의와 설명은 지문학의 종합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전통적인 지지가 갖고 있는 한계, 즉, 메이지 시대 小藤文次郎이 비판했던 상호 관련성이 낮은 잡다한

사항들을 나열하는 것에서 유발되는 문제(小藤文次郎, 1889; 권정화, 1990)와도 관련된다. 지지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와 이로 인한 암기 중심 교육 문제는 지문학의 계통적 성격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등교육 후반부에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일본 메이지 시대 중등 지리 교수요목의 “일본지리 및 외국지리를 가르칠 때 항상 지문 및 실업 관련 사항에 유의하여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많은 사실·수량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피할 것(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3호, 1902; 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2호, 1903).”과 같은 교수상의 주의점에서도 지문 과목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지문학 자체가 교육적 의도에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으로, ‘지구’에 대한 지식 습득과 탐구적 자세,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현상 ‘관찰’ 등 과학적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지문학을 체계화한 Huxley는 지문학의 목적을 지구의 암석권, 대기권, 생물권 등에 대한 종합화된 상식과 기본 원리, 자연 현상의 개관을 가르치는 것에 두었으며,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경험주의, 실물교수, 통합적·인과적 교과 구조 등을 강조하였다(안중옥, 2016:136). Geikie(1877) 또한 ‘Elementary Lessons in Physical Geography’의 서문에서 지문학의 이와 같은 특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자연스러운 출발은 지구 표면의 익숙한 특징을 간단하지만 체계적이고 흥미롭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지리학은 가치 있는 교육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공통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을 생활화하며, 사고하고 탐구하는 과학적 태도를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교육은 시작 단계부터 가능한 한 실제적이어야 한다. (출처: Geikie, 1877:viii)

## IV. ‘지문’의 중등교육 도입과 변화

### 1. 국권 피탈(1910) 이전 - ‘지문’의 도입

우리나라의 교육 관계 법령에서 ‘지문’이라는 교과목은 한성사범학교규칙(학부령 제1호, 1895. 7. 23.; 관보 제121호, 1895. 7. 24.)에서 처음 확인되는데, 제11조 학

과정도(學科程度)표의 지리과 부분에서 '本國及萬國의 政治地理와 地文의 初步'라는 기술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정치지리가 현재의 계통지리 한 분야로서의 정치지리가 아닌, 인문적 속성 전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시 한성사범학교의 지리과에는 본국과 외국의 지리와 자연지리 분야(지문)를 다루는 과목이 개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 영향하의 학부에서는 1906년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고등학교령(칙령 제42호, 1906. 8. 27.; 관보 제3546호, 1906. 8. 31.)에 따른 고등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1호, 1906. 8. 27.; 관보 제3548호, 1906. 9. 3.)을 반포하였다. 이후 국권 피탈 1년 전인 1909년에 고등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4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을 개정하였는데, 두 시행규칙 모두에서 지문은 등장한다. 또한, 고등학교와 같은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여학교와 사범학교 시행규칙에서도 지문 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1908년 이후의 시행규칙에는 "지구의 형상, 운동과 함께 지구 표면과 인류생활의 상태를 이해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와 관련하여 이전에 비해 구체화된 교과 내용 범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지구와 관련한 서술 부분은 당시의 지문 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류생활의 상태 이해와 관련한 부분은 자연지리 중심의 '지문'이, 이후 인문지리적인 내용이 추가되면서 '지

표 4. 조선 및 대한제국의 중등학교 시행규칙 중 지리과 관련 조항

학교(급)	지리과 과목 관련 조항(또는 그 내용)
한성사범학교규칙(학부령 제1호, 1895. 7. 23.; 관보 제121호, 1895. 7. 24.)	第十一條 地理 本國及萬國의 政治地理와 地文의 初步
사범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0호, 1906. 8. 27.; 관보 제3547호, 1906. 9. 1.)	第六條 七 地理 人生에 適當한 事項을 知케 爲主 爲主 外國地理를 教授 若 然 本邦과 重要關係가 有 亞 諸外國의 地理를 尤 極 詳明케 好 其他 地理를 簡略히 好 地文은 本邦 事實에 由 來 矣 教授 必 可 矣
고등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1호, 1906. 8. 27.; 관보 제3548호, 1906. 9. 3.)	第五條 六 地理 人生에 適當한 事項을 知케 爲主 爲主 外國地理는 本邦과 重要關係가 有 亞 諸外國의 地理를 詳明케 好 地文은 本邦의 事實에 由 來 矣 其 一般을 知케 爲 務 必 可 矣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호, 1908. 4. 7.; 관보 제4044호, 1908. 4. 10.)	第五條 六 地理 地球의 形狀 運動과 地球의 表面及 人類生活의 狀態를 理會케 爲 要 務 地理는 我國과 及 我國으로 더부러 重要關係가 有 亞 諸外國의 地理 大要를 知케 好 又 地文의 一斑을 授 必 可 矣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개정)(학부령 제2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第五條 五 地理는 地球의 形狀, 運動과 及 地球表面及 人類生活의 狀態를 理會케 好 處世上 必要한 事項을 知케 爲 要 務 地理는 本國 地理와 及 我國과 重要한 關係가 有 亞 諸外國 地理의 大要를 教授 好 又 地文의 一斑을 教授 必 可 矣
사범학교령시행규칙(개정)(학부령 제3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第五條 六 地理는 地球의 形狀 運動과 并 地球表面及 人類生活의 狀態를 理會케 好 我國及 諸外國의 國勢를 知케 好 且 普通學校의 地理 教授 好 之 方法을 會得케 爲 要 務 地理는 本國 地理와 并 我國과 重要한 關係가 有 亞 諸外國의 地理 大要를 教授 好 且 地圖의 描法과 地文 一斑을 教授 必 可 矣
고등학교령시행규칙(개정)(학부령 제4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第五條 五 地理는 地球의 形狀, 運動과 及 地球表面及 人類生活의 狀態를 理會케 好 處世上 必要한 事項을 知케 爲 要 務 地理는 本國 地理와 及 我國과 重要한 關係가 有 亞 諸外國 地理의 大要를 教授 好 又 地文의 一斑을 教授 必 可 矣

출처: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리학통론', '지리개설' 등으로 변화되는 것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 표 5에 제시된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에서는 이 시기 중등교육에서 학년별로 어떤 지리 과목이 교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한말 - 일제 강점기의 경우 지리와 역사 시수를 묶어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지리과만의 시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적인 경향 파악은 가능하다.

앞서도 기술했듯이 지문의 경우는 제시된 모든 학교에서 지지 학습 이후 중등교육 최고 학년에 배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지에서 배운 내용을 지문을 통해 정리, 일반화·계통화하려는 교육적 의도에 기반

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립 상업계 학교인 인천실업학교<sup>4)</sup>에서 지리과가 아닌 '이과(理科)' 교과에 지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현재의 지리과 상황에서 바라볼 때는 특이한 측면이다. 이는 당시 통감부 영향하의 학부에서 반포한 실업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1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에 따른 것으로, 해당 시행규칙의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에서는 실업(농업, 상업, 공업)학교 중 상업학교에만 지리와 지문을 배정했는데,<sup>5)</sup> 이 중 지문은 현재의 과학과에 해당하는 '이과'에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과목 배정은 해당 시행규칙 총칙 제2조에서 상업학교의 '실업에 관한 과목'으로 제시한 '상업지리'<sup>6)</sup>

표 5. 대한제국의 중등학교 역사·지리과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

학교(급)	학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시수	정도(程度)	시수	정도(程度)	시수	정도(程度)	시수	정도(程度)
師範學校(사범학교령시행규칙, 학부령 제20호, 1906. 8. 27.; 관보 제3547호, 1906. 9. 1.)	歷史	2	본국사	2	외국사의 大要	2	前學年の 續		
	地理	2	본국지리 및 지도묘법	2	외국지리 및 지도묘법	2	前學年の 續 및 지문의 大要		
高等學校(고등학교령시행규칙, 학부령 제21호, 1906. 8. 27.; 관보 제3548호, 1906. 9. 3.)	歷史	3	본국역사	3	동양역사	3	서양역사	3	본국역사 서양역사 좌동 지문
	地理		본국지리		외국지리		좌동		
官立漢城高等女學校(관립한성고등여학교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 학부고시 제4호, 1908. 6. 1.; 관보 제4090호, 1908. 6. 3.)	歷史	1	본국역사 및 지리의 大要	2	본국역사 및 본국에 관계가 有한 外國지리	2	좌동 지문 1반		
	地理								
高等女學校(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개정, 학부령 제2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歷史	2	본국역사	2	좌동 본국에 관계가 有한 外國지리	-	-		
	地理		본국지리						
官立仁川實業學校(관립인천실업학교 학칙, 학부고시 제8호, 1909. 8. 30.; 관보 제4468호, 1909. 9. 1.)	歷史	-	-	2	본국역사	-	-		
	地理	3	본국지리		본국지리 외국지리	1	외국지리		
	理科	3	박물 / 물리		3	물리 / 화학	3		
官立漢城高等學校(관립한성고등학교 학칙, 학부고시 제15호, 1909. 10. 20.; 관보 제4513호, 1909. 10. 25.)	歷史	3	본국역사	3	외국역사	3	좌동	-	-
	地理		본국지리		외국지리		좌동	1	지문
官立平壤高等學校(관립평양고등학교 학칙, 학부고시 제16호, 1909. 10. 20.; 관보 제4513호, 1909. 10. 25.)	歷史	3	본국역사	3	외국역사	2	좌동		
	地理		본국지리		외국지리		지문		

\* 시행 규칙 및 학칙 등에서 역사과와 지리과의 시수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중등학교 지리과의 학년별 과목 배치와 시수 배정 상황 파악을 위해, 역사과와 지리과의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를 함께 제시함(이후 제시하는 표에도 필요 시 같은 방식 적용).

\*\* 학년은 본과와 예과가 있을 시 본과 기준

\*\*\* 이의 '사립학교령' 반포에 따른 사립학교의 학칙 제정 필요성과 그 사례에 대한 학부고시 제6호(1908. 8. 28.; 관보 부록, 1908. 9. 1.)에서도 3학년 지리 과목으로 '외국지리' 또는 '지문'을 제시하고 있음(단, 구체적인 주당 시수는 제시하지 않음.).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업학교령시행규칙에 상업 관련 필수 과목으로 제일 먼저 제시되어 있는 상업지리가, 학과 과정 및 시수 편성의 예시에 해당하는 해당 시행규칙의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와 실제 인천실업학교 학칙의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학부고시 제8호, 1909. 8. 30.; 관보 제4468호, 1909. 9. 1.)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시 상업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지리와 지문 시간을 통해 상업지리를 가르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7)</sup> 상업지리 내용이 지문, 산업 및 상품산물, 교통 및 유통, 국내외의 지지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宮田千年, 1902; 普及舎, 1903:86-87; 中野觀象, 1904)을 고려할 때,<sup>8)</sup> 이러한 상황은 문이과적 내용을 아우르는 지리과의 성격과도 연관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의 중등교육은 중학교령시행규칙(문부성령 제3호, 1901. 3. 5.; 관보 제5298호)과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문부성령 제4호, 1901. 3. 22.; 관보 제5312호) 등을 통해 각 교과와 목표와 성격 등이 큰 틀에서 규정되었으며(표 6), 이후 교수요목을 통해 교과 내 각 과목의 내용(지문 교수요목 내용은 앞서 제시한 표 3 참조)과

주당 시수 등이 제시되었다(표 7). 주당 시수와 과목 배치의 학년별 순서는 대한제국의 중등학교와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모두 우리의 중등교육기관보다 1년씩 더 길며, 따라서 중등 최상위 학년에 배치되는 지문 또한 1개 학년씩 더 고학년에서 배우는 차이가 나타난다.

일본의 중등학교(중학교, 고등여학교) 시행규칙 내용(표 6)은 앞서 제시한 표 4의 대한제국 중등학교 시행규칙 중 1908년 이후의 지리과 관련 조항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한제국의 1909년 고등학교 및 고등여학교 시행규칙 조항은 '處世上必要事項을지혜함'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의 중등학교 시행규칙에서는 이 부분이 '아국 및 제 외국의 국세를 알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이는 통감부의 영향하에 있던 당시의 교육 정책이 실제로는 중등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소위 '고등' 학교를 통해 한국인의 전체 교육 가능 연한을 낮추고, 이를 졸업한 후 바로 실제 사회에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구한말 대한제국의 지문 과목과 당시 일본의 지문 과목의 구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한제국 시기에

표 6. 일본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시행규칙 중 지리과 관련 조항(1901)

학교(급)	지리과 과목 관련 조항(또는 그 내용)
중학교령시행규칙(문부성령 제3호, 1901. 3. 5.; 관보 제5298호)	第六條 地理ハ地球ノ形狀、運動竝ニ地球表面及人類生活ノ狀態ヲ理會セシメ我國及諸外國ノ國勢ヲ知ラシムルヲ以テ要旨トス(지리는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를 理會하게 하고 아국 및 제 외국의 국세를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문부성령 제4호, 1901. 3. 22.; 관보 제5312호)	地理ハ日本地理竝ニ我國ト重要ノ關係アル諸外國ノ地理ノ大要ヲ知ラシメ又テ地文ノ一斑ヲ授クヘシ(지리는 일본지리와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제 외국의 지리의 대요를 알게 하고 지문의 일반을 가르쳐야 한다.) *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에는 '又'가 '兼'으로 표기되어 있음.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표 7. 일본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지리과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1902; 1903)

학교(급)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중학교(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3호, 1902. 2. 6.; 관보 제5575호)	2	일본지리 외국지리	1	외국지리	1	외국지리	1	외국지리	1	지문
고등여학교(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2호, 1903. 3. 9.; 관보 제5901호)	2	일본지리	1	외국지리	1	외국지리	1	지문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국내에서 사용된 지문학 교과서 중 유일하게 학부의 검정<sup>9)</sup>을 통과한 민대식의 ‘신찬지문학(1907)’은 지문학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표 8). 일본인 山上万次郎이 저술한 ‘近世地文學教科書’(1900)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를 대한제국 학부에서 인가해서 사립학교에서 활용하던 것으로, 필자가 확인한 책의 경우 1900년에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1902년 일본 문부성에서 공포한 중학교 지문 교수요목(표 3)과의 일치도는 매우 높다.

윤태영의 ‘중등지문학(1907)’도 학부 인가 교과용도서인데, 다른 두 교과서와는 책의 체제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크게 3부분으로 책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수리편’에서는 지구의 천체로서의 여러 성격을 다루고, ‘천연편’에서는 지구 표면에서 작용하는 각종 자연(천연)적인 힘에 대한 내용을 논하며, ‘인류편’에서는 인구밀도, 인종, 언어, 종교 등 인류에 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5개 영역(지구(혹성) 특성 - 육지 - 대기 - 바다 - 생물) 중 지구 특성은 수리편에, 나머지

표 8. 대한제국 학부 검정 및 인가 지문학 교과서(학부편집국 교과용도서일람, 1910. 7. 기준) 목차 비교

민대식 편술, 1907, 신찬지문학, 경성: 휘문관	山上万次郎, 1900, 近世地文學教科書, 東京: 富山房	윤태영 편저, 1907, 중등지문학, 경성: 보성관
<p>總論</p> <p><b>地球星學</b></p> <p>地球의 形狀 地球는 球形의 證/ 上下 및 東西南北/ 經度 및 緯度/ 磁石</p> <p>地球의 運轉 太陽系/ 地球의 自轉/ 地球의 公轉</p> <p>地圖의 製法</p> <p><b>陸</b></p> <p>陸地 地殼 地殼/ 地層 및 岩石/ 山</p> <p>地面變化 地下力[汀線의 變化; 地震 火山; 火山 및 地震의 分布; 泉</p> <p>地上力[河; 湖; 磯波의 力(附 島嶼의 種類); 風の 作用; 空氣 및 生物, 기타 化學作用]</p> <p><b>空氣</b></p> <p>空氣의 成分 및 擴張 空氣의 溫度 氣壓 空氣의 運動 風/ 海陸軟風 및 貿易風/ 旋風 및 氣候風</p> <p>空氣의 濕度 雲/ 降下物</p> <p><b>海洋</b></p> <p>海水 海洋의 區別 및 海底 海水의 運動 波浪/ 海流 潮汐</p> <p><b>生物의 分布及傳播</b></p>	<p>總論</p> <p><b>天文地理</b></p> <p>태양계/ 지구의 형성/ 지구의 운동/ 지표의 측정/ 地磁氣</p> <p><b>陸界</b></p> <p>육계의 배치/ 육계의 변동 내력의 작용 화산, 지진, 산맥의 생성, 해안선의 변화 외력의 작용 공기의 작용, 물의 작용, 생물의 작용</p> <p><b>氣圈</b></p> <p>기권의 성질 및 작용/ 기온/ 기압/ 風/ 기권의 수분/ 기권의 광학현상/ 天氣 및 氣候</p> <p><b>水界</b></p> <p>해면/ 해저/ 해수의 성질/ 해수의 온도/ 해수의 운동(파랑, 조석, 해류)</p> <p><b>生物地理</b></p> <p><b>地殼</b></p> <p><b>結論</b></p>	<p>地文學目的</p> <p><b>수리편(數理篇)</b></p> <p>星의 종류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지구의 형(形)과 대(大) 태음(太陰) 식(蝕)</p> <p><b>천연편(天然篇)</b></p> <p>육계(陸界) 수계(水界) 기계(氣界), 광(光)의 현상과 지자기(現象及地磁氣) 생물계(生物界)</p> <p><b>인류편(人類篇)*</b></p> <p>인류(人類) 인류와 기후관계(氣候關係)/ 인구밀도(人口密度)/ 인종(人種)/ 생활상태로 인한 분류 / 국가조직과 정체(政體)/ 언어(言語)/ 종교</p> <p>* 원래 도서의 목차면에서는 인류편의 하위 목차가 ‘인류’까지만 제시됨. 논의 전개를 위해 수리편, 천연편과는 달리 본문상의 하위절 내용도 함께 제시함.</p>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4개 영역은 천연편에 담은 후, '인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장으로 편성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중등지문학'의 '인류편' 등장은 중등학교 시행규칙 지리과 조항의 '인류생활의 상태 이회(理會)'라는 표현(표 4, 6)과도 궤를 같이하며,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인문지리 내용이 지문에 추가되는 변화와도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0)11)</sup>

## 2. 국권 피탈(1910) 이후 - '지문'의 변화

### 1)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 11.~1922. 3.) - 인문지리 내용의 포함으로 인한 일본 교수 요목의 변화

일제 강점기 중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한국에서는 지문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교수요목에서 '지문'이라는 과목 명칭에 이미 변화가 시작된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까지 일본 중등교육 최고 학년 지리과에 배치되었던 지문이 1911년 문부성 훈령 제15호에 따른 중학교교수요목(1911. 7. 31.; 관보 제8432호)의 제5학년에서는 '자연지리개설'과 '인문지리개설'로, 같은 해 문부성 훈령 제12호로 발표된 고등여학교 교수요목(1911. 7. 29.; 관보 제8431호)의 제4학년에서는 '지리개설'로 변화되었다(표 9). 사범학교교수요목에서는 이보다 1년여 앞선 1910년에 이미 자연지리개설과 인문지리개설을 확인할 수 있는데(문부성 훈령 제13호, 1910. 5. 31.; 관보 제8080호), 이는 1907년 제정된 사범학교규정(문부성령 제12호, 1907. 4. 17.; 관보 제7136호)의 "지문의 일반과 인문지리 개설을 가르친다."는 취지의 기술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과목 명칭 변화는 내용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해당 훈령에 제시된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지리개설의 교수요목은 표 10과 같다. 사범학교 및 중학교 자연지리개설과 인문지리개설을 합치면 고등여학교의 지리개설 과목이 되며, 내용의 일부가 소폭 줄어드는 것 이외에 큰 차이는 없다. 지문과의 관련성을 보면, 자연지리개설의 내용은 이전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현재의 계통지리에 해당하는 인문지리개설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해방 직후 우리 교수요목기의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수요목과 거의 일치한다. 즉, 자연지리 부분은 물론 인문지리 부분도 인종/인구 - 취락 - 산업/경제 - 국가/정치로 이어지는 '자연환경과 인류생활'과 내용은 물론 순서까지도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적어도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해방 이후까지 연장되는 일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중등학교 교수요목의 이러한 변화는 메이지 후반기인 1890년 무렵부터 활발해진 일본 지리학의 목적과 분야, 탐구 대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田村百代(1978)는 '地学雑誌'의 창간호 첫 번째 논문으로 실린 小藤文次郎(1889)의 "地学雑誌発行ニ付地理学ノ意義ニ解釈ヲ下ス(지학잡지발행에 부쳐 지리학의 의의에 대해 해석을 내림.)"을 Ratzel의 인류지리학(1882)과 비교·분석<sup>12)</sup>하면서, 1890년경부터 대략 20년 동안 '東洋学芸雑誌', '地学雑誌', '歴史地理'에 발표된 주요 관련 연구 문헌(金田樞太郎, 1891; 1893; 山崎直方, 1902a; 1902b; 1903; 小川琢治, 1904; 喜田貞吉, 1907; 石橋五郎, 1908)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田村百代(1978)는 당시를 수리지리학, 지문학, 정치지리학의 3개 분야, 혹은 여기에 인류지리학을 더한 4개

표 9. 일본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지리과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1911)

학교(급)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중학교(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5호, 1911. 7. 31.; 관보 제8432호)	2	일본지리	1	만주지리 세계지리	1	세계지리	1	세계지리	1	자연지리 개설 인문지리 개설
고등여학교(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2호, 1911. 7. 29.; 관보 제8431호)	2	일본지리	1	만주지리 세계지리	1	만주지리 세계지리	1	지리개설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표 10. 일본 사범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지리개설' 관련 과목의 교수요목(1910; 1911)

<p>문부성, 1910; 1911, '자연지리개설' 및 '인문지리개설' 교수요목 (사범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3호, 1910. 5. 31.; 관보 제8080호/ 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5호, 1911. 7. 31.; 관보 제8432호)</p>	<p>문부성, 1911, '지리개설' 교수요목 (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2호, 1911. 7. 29.; 관보 제8431호)</p>
<p><b>&lt;자연지리개설&gt;</b> 우주, 태양계, 태양 지구 및 지구의 운동 달 및 달의 운동 曆 陸界의 변동 및 지형 해양의 상태 氣界의 상태, 天氣 및 기후 地勢·기후·생물의 상호 관계 <b>&lt;인문지리개설&gt;</b> 자연과 인류의 관계 주민 및 주민의 상태 生業 및 중요 산물의 분포 교통 국가 세계 주요 諸國의 국력 비교 세계에서의 本邦의 지위 * 사범학교교수요목(1910)에서는 '본방의 세계에서의 위치'임.</p>	<p>태양계 지구 및 지구의 운동 달 및 달의 운동 曆 陸界의 상태 해양의 상태 氣界의 상태, 天氣 및 기후 地勢·기후·생물의 상호 관계 자연과 인류의 관계 주민 및 주민의 상태 生業 및 중요 산물의 분포 교통 세계 주요 諸國의 국력 비교 세계에서의 本邦의 지위</p>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분야에서 지문학(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두 분야로 지리학이 재편되는 과도기라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지리학 분야에 대한 논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의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앞서 田村百代(1978)가 제시한 관련 연구들을 확인해보면, 자연지리에 대해서는 지문학이 이미 포괄화되어 있는 관계로 내용 및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의 빈도나 편차가 크지 않지만, 인문지리 분야는 '인문'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도 '인생', '인류' 등 여러 표현들이 함께 사용되었고 상대적으로 폭 넓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리와 관련하여 '세밀번다(細密繁多)한 사실의 나열과 이로 인한 암기 위주의 교육에 대한 우려 및 개선 필요성이 이 시기의 교수요목에 나타나는데(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3호, 1902; 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2호, 1903), 田村百代(1978)가 제시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관점은 메이지 전반기부터 추진된 각종 공업 발달과 철도·통신망 확충 등으로 인한 일본 국토의 급격한 변화, 당시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지리적인 지식과 정보, 대만(1895)과 대한제국(1910)의

강제 병합·식민화를 통한 영토 확장 등 지리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경제적 사상(事象)들이 급증한 것과도 일정 부분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계통지리가 지리적 사상(事象)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이론화·일반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문(자연지리)뿐 아니라 인문지리 분야에도 중등 최고 학년에 계통지리를 도입하여, 지리교과목 체계를 '지지 - 지문(자연지리)'에서 '지지 -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지리학이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이루어진 '지리학통론'과 이를 지구의 일부분에 적용하여 한 나라, 한 지방의 지문과 인문을 말할 때의 지지 즉, '지리학각론'으로 구성된다는 山崎直方(1906:1-2)<sup>14)</sup>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메이지 후반기 일본의 중등학교 교수요목 개정 상황과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비견해보면, 1902년 및 1903년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교수요목 공포 시에는 일본 내 지리학계와 교육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1910년 즈음의 개정 시에는 적어도 중등 최고 학년 지리 과목을 지문에서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지리개설과 같이 변경하는 정도까지는

논의가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인문 지리 관련 요목으로 자연과 인류의 관계, 주민, 국가 및 국력 비교, 일본의 지위 등이 포함된 것은 지리학에 대해 小藤文次郎(1889)이 도입한 Ratzel(1882)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며,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화와도 일정 정도 맥이 닿는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변화와는 달리,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한국인

을 위한中等교육 기관 중 고등보통학교<sup>15)</sup>에서는 지문이 그대로 유지되며, 각종 법령 등에서 확인되는 지문에 대한 조항이나 설명도 구한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11). 다만,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지문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 각 학년별 지리과 과정 및 주당 시수표에서도 최고 학년에서 지문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다(표 11, 12). 당시의 이러한 상황은

표 11.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한국인 대상 중등학교 시행규칙 중 지리과 관련 조항(1911; 1920)

학교(급)	지리과 과목 관련 조항(또는 그 내용)
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11. 11.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1. 10. 20., 제정]	제16조 ① 지리는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에 관한 지식의 일반을 얻게 하여 처세상 필수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지리는 본방지리와 외국지리의 대요를 알게 하고 지문의 일반을 가르쳐야 한다.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11. 11. 1.] [조선총독부령 제112호, 1911. 10. 20., 제정]	제15조 ① 지리는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에 관한 지식의 일반을 얻게 하고 처세상 필수적인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지리는 본방지리와 우리나라와 주요한 관계가 있는 외국의 지리에 대하여 그 대요를 가르쳐야 한다.
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20. 1. 1.] [조선총독부령 제187호, 1919. 12. 1., 일부개정]	제16조 ① 지리는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를 이해하게 하고 아국 및 제 외국의 국세를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지리는 일본지리와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제 외국의 지리의 대요를 알게 하고 지문의 일반을 가르쳐야 한다.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20. 1. 1.] [조선총독부령 제188호, 1919. 12. 1., 일부개정]	제15조 ① 지리는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를 이해하게 하고, 아국 및 제외국의 국세를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지리는 일본지리와 우리나라와 주요한 관계가 있는 외국의 지리에 대하여 그 대요를 가르쳐야 한다.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표 12.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한국인 대상 중등학교 역사·지리과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1911; 1921)

학교(급)	학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11. 11.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1. 10. 20., 제정]	歷史	-	-	2	본방역사	2	외국역사*	2	좌동
	地理	2	본방지리	-	-		외국지리**		지문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11. 11. 1.] [조선총독부령 제112호, 1911. 10. 20., 제정]	歷史	2	본방역사	1	좌동	-	본방에 관계가 있는 외국지리	/	
	地理		본방지리*	-	-	1			
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21. 4. 11.] [조선총독부령 제54호, 1921. 4. 11., 일부개정]	歷史	-	-	2	일본역사	3	외국역사	2	좌동
	地理	2	일본지리	-	-	3	외국지리	2	지문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21. 4. 11.] [조선총독부령 제55호, 1921. 4. 11., 일부개정]	歷史	-	-	2	일본역사	-	-	/	
	地理	2	일본지리	-	-	1	외국지리		

\* 제1학년 본방역사는 본방지리를 마친 후에 가르친다(조선총독부령 제112호의 비교).

\*\* 외국역사는 외국지리를 마친 후에 가르친다(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의 비교).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3개 학년 동안 지지와 일본역사 이외의 과목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 여자 중등교육기관 규칙과 시수표에 지문과 같은 계통지리 과목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제2차 조선교육령기인 1922년부터이다.

또한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개정한 고등보통학교규칙과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의 지리와 과목 관련 조항에서는 ‘치세상 필수적인 사항을 알게 한다.’는 표현이 사라지게 된다(표 11). 이는 중등교육 기관에서 종료되었던 한국인의 교육 기회가 명목상이나마 연장되고 이에 따라 지리과 목표 또한 달라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에 주로 한국 거주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된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경우는 학과 과정 및 주당 시수표의 최종 학년도 지리 과목으로 지리개설, 지문,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3). 이는 일본 문부성의 1910년 경의 교수요목 개정 결과가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에 먼저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한국 거주 일본인 학생들의 경우 현재의 계통지리에 해당하는 인문지리 내용을 본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시작했다.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인 191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고등보통학교용 ‘지문학교과서(1914)’를 편찬했다는 점은 교과목으로서의 지문학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사실

이다. 해당 교과서의 목차는 앞서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지문학 교과서와 유사하다. 권혁재(1982:256)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장보영(1971)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연환경에 대한 사례가 많은 ‘우수한 자연지리학 교과서’로 이 교과서를 평가하고 있다. 실제 해당 지문학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4편 ‘공기’에는 우리나라 기후와 관련 다수의 등치선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비중도 큰 편이다. 책의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9종류의 암석 또는 지층으로 구분하여 채색한 ‘조선지질도’가 3쪽 정도 크기의 접힌 지도로 제시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제5편 ‘지문과 인문’에서는 이전의 많은 지문학 교과서들과는 달리 인문환경에 대한 자연환경의 영향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제5편의 4장 ‘지문과 인력’의 경우는 앞서 환경결정론적인 시각이 강조된 제5편 1~3장과는 달리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인간의 노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측면은 일본의 1910년, 1911년의 교수요목 개정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교과서가 편찬된 직후인 1915년 ‘교과용도서 일람(제9판)’에서는 “일본지리 및 지문학은 본부 편찬 일본지리 교과서 및 지문학 교과서를 사용할 것(p. 19)”과

표 13.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한국 거주 일본인 중등학교 역사·지리과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2014; 2018; 2021)

학교(급)	학과목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경성공립고등여학교 [조선총독부 완결 1914. 3. 12.]	歷史	3	일본역사	3	일본역사	2	외국역사	3	외국역사		
	地理		일본지리		외국지리		외국지리		지문		
부산공립고등여학교 [조선총독부 완결 1914. 4. 16.]	歷史	1	일본역사	2	좌동	2	외국역사	1	일본역사		
	地理	2	일본지리	1	외국지리	1	좌동	2	지리개설		
부산중학교 [조선총독부 완결 1914. 10. 26.]	歷史	1	일본역사	2	좌동	2	외국역사	2	좌동	2	외국역사 일본역사
	地理	2	일본지리	1	세계지리	1	좌동	1	좌동	1	지리개설
용산중학교 [조선총독부 완결 1918. 6. 18.]	歷史	3	일본역사	3	좌동	3	외국역사	3	좌동	3	외국역사 일본역사
	地理		일본지리		세계지리		좌동		좌동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인천공립고등여학교 [조선총독부 완결 1921. 12. 20.]	歷史	3	일본역사	3	일본역사	2	외국역사	2	외국역사		
	地理		일본지리		세계지리		세계지리		지문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생산 학칙 제정 및 변경 신청 관련 문서 기록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listGovernmentTypeSearch.do?biz\\_func\\_id=001040](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listGovernmentTypeSearch.do?biz_func_id=001040))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학교(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관련 문서

같은 기술이 확인된다. 이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지리교과서 중 외국지리 이외의 교과서는 현재의 국정 교과서와 유사하게 총독부에서 직접 편찬한 것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전까지 한국인 저자들이 집필해서 검정 및 인가를 받아 사용하던 지문학 교과서들은 공식적 교과서로서는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 4.~1938. 3.)  
- 중등학교 현장의 교과과정 변화**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는 3·1운동 이후 일본이 그들의 통치 방식을 회유적 문화주의로 전환한 때부터,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인해 한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아 전시체제를 구축하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일본어를 숙달케 하는(제2차 조선교육령 제5조, 제8조) 동화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교의 수업 연한과 동일하게 증대하였으며, 새로 사범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도 제도상으로는 개방하였다(유봉호·김용자, 1998:109, 112).

한국인들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한국 거주 일본인들이 주로 다니는 중학교 규칙을 1, 2차 교육령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표 14와 같다. 앞서 기술했듯이 3·1운동 직후인 1919년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에서 ‘처세상 필수적인 사항을 알게 한다.’라는 문구가 사라진 이후,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규칙에는 ‘조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하며’란 표현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는 조선총독부 편찬 ‘지문학교과서(1914)’에 한국의 사례가 많이 포함된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지문의 경우는 제2차 조선교육령 시작부터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기 직전인 1937년까지도 조선총독부령에 의한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에서 ‘지문의 일반을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 거주 일본인들이 주로 다녔던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일본인 대상 학교의 규정에서는 ‘조선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밝히며’라는 표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표 14).

**표 14.** 제1, 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중등학교 시행규칙 중 지리과 관련 조항 비교

시기	대상	학교(급)	지리과 과목 관련 조항(또는 그 내용)
제1차 조선 교육령 (말기)	한국인	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21. 4. 11.][조선총독부령 제54호, 1921. 4. 11., 일부개정]	제16조 ① 지리는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를 이해하게 하고 아국 및 제 외국의 국세를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지리는 일본지리와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제 외국의 지리의 대요를 알게 하고 지문의 일반을 가르쳐야 한다.[전문개정 1919. 12. 1.]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시행 1921. 4. 11.][조선총독부령 제55호, 1921. 4. 11., 일부개정]	제15조 ① 지리는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를 이해하게 하고 아국 및 제외국의 국세를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개정 1919. 12. 1.> ② 지리는 일본지리와 우리나라와 주요한 관계가 있는 외국의 지리에 대하여 그 대요를 가르쳐야 한다. <개정 1919. 12. 1.>
제2차 조선 교육령	한국 거주 일본인	고등보통학교규정 [시행 1922. 4. 1.][조선총독부령 제16호, 1922. 2. 20., 제정]; [시행 1937. 9. 1.][조선총독부령 제131호, 1937. 8. 30., 일부개정]	제14조 ① 지리는 지구의 형상, 운동과 지구의 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를 이해하게 하고 아국 및 제 외국의 국세를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지리는 일본지리와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제 외국의 지리의 대요를 알게 하고 조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하며 지문의 일부분을 교수하여야 한다.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시행 1922. 4. 1.][조선총독부령 제14호, 1922. 2. 17., 제정]; [시행 1937. 6. 1.][조선총독부령 제68호, 1937. 5. 21., 일부개정]	
제2차 조선 교육령	한국 거주 일본인	중학교규정 [시행 1922. 4. 1.][조선총독부령 제13호, 1922. 2. 17., 제정]; [시행 1937. 6. 1.][조선총독부령 제67호, 1937. 5. 21., 일부개정]	제16조* ① 지리는 지구의 형상·운동과 지구표면 및 인류생활의 상태를 이해하게 하고 아국 및 제외국의 국세를 알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지리는 일본지리와 아국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제외국의 지리의 대요를 알게 하고 지문의 일반을 가르쳐야 한다. * 고등여학교 규정은 제17조임.
		고등여학교규정 [시행 1922. 4. 1.][조선총독부령 제10호, 1922. 2. 16., 제정]; [시행 1937. 6. 1.][조선총독부령 제66호, 1937. 5. 21., 일부개정]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중등교육 기관에 대한 규정과는 달리 제2차 조선교육령기 최종 학년의 지리과 과정은 한국인 대상의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일본인 대상의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모두에서 지문이 지리학통론, 그리고 자연지리개설과 인문지리개설, 지리개설 등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리학통론이 다시 ‘...개설’ 또는 ‘...개요’와 같은 과목으로 변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리고 지문이 나타나는 중등학교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한국인 대상 중등교육기관 중 일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해당 학교의 경우도 지문 과목이 확인된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학교 과정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표 15).

지리학통론은 문부성령 및 훈령에 제시된 지리개설 또는 자연지리개설·인문지리개설 등과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실제 목차도 교수요목에 제시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1920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이와 같은 중등학교 계통지리 교과서 대부분은 당시 일본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조선총독부 인가 후에

표 15.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중등학교 지리과 최종 학년 지리 과정

학교(주로 일본인 대상)	최종 학년 지리 과정	학교(주로 한국인 대상)	최종 학년 지리 과정
경성사범학교(보통과) [관보 제4176호 1926. 7. 21.]	지리학통론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칙변경신청, 조선총독부 완결 1922. 3. 15.]	지리학통론
경성공립중학교 [경성, 용산 공립중학교 학칙변경의 건, 조선총독부 완결 1926. 6. 3.]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학칙제정신청, 조선총독부 완결 1922. 4. 15.]	지문
용산공립중학교 [경성, 용산 공립중학교 학칙변경의 건, 조선총독부 완결 1926. 6. 3.]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보성고등보통학교 [학칙제정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완결 1922. 6. 12.]	지리통론
원산공립중학교 [원산공립중학교 학칙변경의 건, 조선총독부 완결 1926. 8. 21.]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배재고등보통학교 [학칙변경신청, 조선총독부 완결 1922. 7. 21.]	지문
신의주공립중학교 [관보 제4106호, 1926. 4. 29.]	지리학통론	관립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칙인가신청, 조선총독부 완결 1922. 8. 21.]	지리개설
대구공립중학교 [관보 제200호, 1927. 8. 27.]	지리학통론	호수둔여자고등보통학교 [학칙변경신청, 조선총독부 완결 1924. 3. 5.]	지문
경성제1공립고등여학교 [공립학교 학칙변경의 건, 조선총독부 완결 1926. 12. 9.]	지리통론	청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학칙변경의 건, 조선총독부 완결 1926. 4. 2.]	지문
신의주공립중학교 [관보 제1275호, 1931. 4. 9.]	지리학통론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관보 제4065호, 1926. 4. 5.]	지리개설
나남공립중학교 [관보 제1281호, 1931. 4. 16.]	자연지리 인문지리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관보 제4170호, 1926. 7. 14.]	지리개설
평양공립중학교 [관보 제1373호, 1931. 8. 3.]	지리학통론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관보 제200호, 1927. 8. 27.]	지리학통론
신의주공립중학교 [관보 제1619호, 1932. 6. 2.]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평양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관보 제708호, 1929. 5. 15.]	지리학통론
평양공립중학교 [관보 제2176호, 1934. 4. 14.]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신의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관보 제1275호, 1931. 4. 9.]	지리학통론
대구공립중학교 [관보 제3549호, 1938. 11. 16.]	지리개설	경성鎭公公립고등보통학교 [관보 제281호, 1931. 4. 16.]	지리학통론
경북공립중학교 [관보 제3549호, 1938. 11. 16.]	지리개설	평양공립고등보통학교 [관보 제1363호, 1931. 7. 22.]	지리개설
경북공립고등여학교 [관보 제3552호, 1938. 11. 19.]	지리개설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 [관보 제1720호, 1932. 9. 29.]	지리학통론
경주공립중학교 [관보 제3599호, 1939. 1. 20.]	지리개설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관보 제3212호, 1937. 9. 28.]	지리개설
포항공립고등여학교 [관보 제3736호, 1939. 7. 5.]	지리개설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관보 제3256호, 1937. 11. 20.]	자연지리개요 인문지리개요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의 해당 학교 학칙 관련 기사(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생산 학칙 제정 및 변경 신청 관련 문서 기록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listGovernmentTypeSearch.do?biz\\_func\\_id=001040](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listGovernmentTypeSearch.do?biz_func_id=001040))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학교(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관련 문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편찬한 고등보통학교용 '지문학교과서(1914)'의 경우는 1922년에 증쇄를 했다는 내용이 필자가 참고한 도서의 판권지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후 지리학통론, 지리개설 등의 교과서를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편찬했다는 기록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학무국의 '인가교과용도서일람'<sup>16)</sup>에서도 일본인 저술 지리학통론과 지리개설 류의 교과용도서들이 총독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때, 1920년대 후반 이후 일본과 한국의 중등학교 계통지리 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적어도 교재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해당 과목은 일본 문부성이 반포한 중학교교수요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31년 문부성에서 개정한 자연지리개설 및 인문지리개설 교수요목과 조선총독부에서도 인가한<sup>17)</sup> 山崎直方(1931)의 교과서 목차를 비교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1931년 중학교교수요목의 목차는 앞서 제시한 바 있는 1910년, 1911년 교수요목(표 10)과 거의 동일하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1920년대 중반부터는 중등학교현장의 지리과 과정이 지문학 내용을 포함한 지리학통론이나 지리개설 등으로 이미 변경되고 있었다는 점, 특히 193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지리개설(또는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과목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해지는 각종 중등학교 규칙이나 규정에서, 제2차 조선교육령기 내내 '지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과는 상이한 측면이다.

표 16. '지리개설' 교수요목(1931)과 '지리학통론' 교과서 목차 비교

문부성, 1931, '자연지리개설' 및 '인문지리개설' 교수요목 (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5호, 1931. 2. 7.; 관보 제1231호)	新制地理學通論 [(訂正 6版), 山崎直方 著, 辻村太郎 補訂(1931), 東京開成館]
<p><b>〈자연지리개설〉</b> 우주 및 태양계 지구 달 曆 陸界, 그것의 변동 해양 氣界, 天氣 및 기후 地勢·기후·생물의 상호 관계</p> <p><b>〈인문지리개설〉</b> 자연과 인류의 관계 주민 산업 교통 국가 세계 주요 諸國의 국세 비교 세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p>	<p><b>제1편 지문학</b> 지구성학(地球星學) 우주 및 태양계, 지구, 지표에서의 측정, 지구 및 달의 운동, 시(時)와 력(曆), 지구의와 지도 육계(陸界)지리학 육지의 분포와 지절(肢節), 육계의 변동, 지형과 그 성인(成因) 수계(水界)지리학 해양, 해수의 성질, 해수의 운동 기계(氣界)지리학 기권, 기온, 기압, 공기의 운동, 공기의 습도, 천기 및 기후 생물지리학</p> <p><b>제2편 인문지리학</b> 자연과 인류 토지와 인류의 관계, 기후와 인문, 지형과 인문, 해양과 인문 세계의 주민 및 그 상태 인종의 별(別)과 분포, 제(諸)인종의 세력 비교, 인구, 언어, 종교 인류의 주소 촌락, 도시, 촌락·도시의 밀도 산업 및 중요 산물의 분포 지리적 분업, 원료·생산의 분포, 제작 생산, 상업, 교통, 통신 국가 국가의 요소, 국제(國體)와 정체(政體), 국가의 소속지, 식민지의 종류, 국토의 경계 세계 주요 제(諸)국의 국력 비교 국가의 대소, 열국의 균비, 열국의 재정</p>

\* 山崎直方の '新制地理學通論(제6판)' 제1편의 제목인 '지문학'은 訂正 8版(1935)에서는 교수요목과 유사하게 '자연지리학'으로 변경되며, 이의 대부분의 장·절 제목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됨.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일본의 경우도 1931년 이전의 '중학교령시행규칙'에서는 지문의 일반을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1931년 해당 규칙의 개정(문부성령 제2호, 1931. 1. 10.; 관보 제1207호)에 와서야 지리개설이 등장하게 된다.<sup>18)</sup> 즉, 1911년 7월, 하위 법령인 일본 문부성 훈령상의 지리 과 교수요목이 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과서가 변경된 이후에도, 상위 법령인 문부성령에서는 20년 동안 '지문'이라는 명칭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등여학교의 경우는 1943년 고등여학교규정 제정(문부성령 제3호, 1943. 3. 2.; 관보 제4838호) 즈음인 1942년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의 지리과 관련 조항에서 '지문의 일반을 가르쳐야 한다.'는 1901년의 조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즉, 고등여학교의 경우는 1911년 지리개설이 교수요목으로 제시된 이후에도 30여 년 동안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지문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점은 '지문'이라는 용어가 중등교육에서 과목명이나 교과서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광의의 자연지리(태양계, 지구(혹성) 특성, 생물계 등을 포함)를 포괄하던 지리 과목으로서의 지문이,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계통지리 내용이 본격적으로 추가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지리 중심의 계통지리 관련 지리교육과정 또는 지리분야를 통칭했던 것으로도 추정된다.<sup>20)</sup> 최근 일본의 지리교육관련 연구에서는 지문이 1910년대 이후 문부성 훈령에 기반하여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던 지리학통론이나 지리개설 등의 지리 과목들과 별다른 구별 없이 혼용되었다는 주장도 확인되고 있다.<sup>21)</sup>

### 3)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및 그 이후(1938. 4.~) - 중등교육 관련 법령에서의 '지문' 표기 소멸

1938년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이전 시기까지는 달랐던 한국인이 주로 다녔던 중등학교 명칭과 일본인이 주로 다녔던 중등학교 명칭이 같아지게 되었다.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는 중학교로, 고등여자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는 고등여학교로 통일되었는데, 이는 한국인을 적어도 외적으로는 일본인과 차별이 없어 보이는 '황국신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총독부는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전락시키고, 수신·공민·체육 시

간을 증대했다(유봉호·김용자, 1998:143-151).

지리과와 관련해서 보면,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지문'이라는 과목 명칭이 적어도 조선총독부의 중등학교 규정에서는 사라지게 된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1931년 중학교령시행규칙(문부성령 제2호)의 개정을 통해 중학교 관련 법령상에서 지문이 사라진 바 있다. 고등여학교의 경우는 앞서 제시했듯이 오히려 일본에서는 지문이 유지되었지만, 조선총독부의 법령에서는 남학교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지리과 관련 규정(시행 1938. 4. 1.] [조선총독부령 제25호; 제26호, 1938. 3. 15., 전부개정)은 직전 연도인 1937년 조선총독부 규정에 비해 기술 내용이 양적으로 급증한다(표 14와 표 17 비교). 전반적으로 '애국심 양성', '국민의 진취적 발전의 기상 함양' 등 기존 규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문학 내용을 포함한 지리개설과 관련해서도 '지리적 이법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 국세(國勢)를 상세하게 하여...아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식견을 육성'과 같이 국가주의, 국민주의적 관점이 강조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규정 전반에 강조되어 있는데, 지리개설과 관련하여 바로 위에서 제시한 '지리적 이법(理法)을 깨닫게 함...'의 경우도 계통지리적 원리를 깨닫게 하여 아국(일본)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sup>22)</sup> 이는 지리개설을 포함한 지리과 과목들의 도구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황국신민의 연성과 전시체제 관련 군국주의적 교육 등을 위한 중등 국민과에 지리과가 포함되는 것과도 곧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표 17).

이 시기 지리개설의 내용은 1937년 반포된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교수요목(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9호; 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0호, 1937. 3. 27.; 관보 제3068호)으로 규정된다. 다만, 이전의 지리개설 등과 비교할 때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중학교에서 자연지리개설과 인문지리개설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지리개설로 통합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문부성 반포 지리개설 교수요목과 당시 실제 교과서의 목차를 비교하면 표 18과 같다. 과거 지문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별도의 큰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

지리 다음에 인문지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교과서 목차가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해방 직후 교수요목기의 중등교육 과목인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의 목차에서도 확인되는 속성이다.

### V. 맺음말

일제 강점기 중등교육의 가장 마지막 학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이 없었던 시기에는 가장 학력이 높은

표 17. 제3, 4차 조선교육령시기 중등학교 시행규칙 중 지리과 관련 조항

학교(급)	지리과 과목 관련 조항(또는 그 내용)
중학교규정 [시행 1938. 4. 1.] [조선총독부령 제25호, 1938. 3. 15., 전부개정]  고등여학교규정 [시행 1938. 4. 1.] [조선총독부령 제26호, 1938. 3. 15., 전부개정]	제16조* ① 지리는 자연 및 인류생활의 정감을 이해**하게 하여 양자의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인류가 자연을 이용·개발하여 세계 각지의 문화를 형성하는 소이를 알게 하며 우리 국민성·국민생활·국세발전의 필요를 명료하게 하여 제외국과의 비교에 의하여 아국의 특성과 지위를 바르게 파악하게 하여 애국심을 양성하고 국민의 진취적 발전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의 흥륭에 도움을 주게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② 지리는 일본지리·외국지리 및 지리개설로 하고 일본지리는 아국의 국토의 정세와 국세발전***의 유래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지리는 아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방을 아국과 비교하게 하여 국민적 자각의 환기에 힘쓰며, 지리개설은 아국에 관한 사항에 입각하여 지리적 이법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 국세를 상세하게 하여 아국의 특성 및 세계에서의 지위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아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식견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③ 지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항상 재료**의 이동(異動)에 유의하여 적절한 지식을 부여하는데 힘쓰고, 재(在)외방인(外邦人)의 활동상황을 알게 하여 해외발전의 정신의 양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고등여학교규정은 제18조가 지리 관련 내용임. ** 조선총독부 관보(호외, 1938. 3. 15.)에는 ‘정감을 이해하게가’ 정태(情態)를 이회(理會)하게로, ‘재료’가 ‘교재(教材)’로 표기되어 있음. 필자의 판단으로는 관보의 표기가 정확한 것으로 보임. *** 고등여학교규정에는 국세발달(國勢發達)로 표기되어 있음.
중학교규정 [시행 1943. 4. 1.] [조선총독부령 제58호, 1943. 3. 27., 제정] 고등여학교규정 [시행 1943. 4. 1.] [조선총독부령 제59호, 1943. 3. 27., 제정]	제3조 ① 국민과는 아국의 문화와 중의의 역사 및 지리에 대하여 습득하게 하고 국체의 본의를 천명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고 실천으로 배양할 것을 요지로 한다.* ② 국민과를 나누어 수신·국어·역사 및 지리 과목으로 한다. * 고등여학교규정은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고 부덕을 계발하여 기르는 것을 요지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음.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표 18. 일본 문부성 ‘지리개설’ 교수요목(1937) 및 교과서 목차 비교

문부성, 1937, ‘지리개설’ 교수요목(중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9호; 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0호, 1937. 3. 27.; 관보 제3068호)	三省堂編輯所 編(1941), 最近地理概說 中等(改訂版、修正3版), 東京: 三省堂
지구	제1장 지구 - 지구의 위치, 지구의 실제, 지구의 운동, 지표의 묘사
육지	제2장 육지 - 육지의 현상, 육지의 변동, 지형
해양	제3장 해양 - 바다와 해수, 해수의 운동
기후	제4장 기후 - 대기, 강수, 천기(天氣)와 기후
주민	제5장 주민 - 인종과 민족, 언어와 신앙, 인류의 생활, 인류의 주소, 자연과 인생, 문화
산업	제6장 산업 - 농업, 목축, 임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附 관광업)
교통	제7장 교통 - 육운(陸運), 수운, 공운(空運), 통신
정치	제8장 정치 - 국가의 조직, 국가의 판도, 국세, 국제 관계
세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	제9장 세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 - 우리 국토, 우리 국민, 우리의 발전

출처 : 표 내부에 해당 내용과 함께 명기

사람들이 배우던 지리 과목이 바로 '지문'이었다. 이와 같은 '지문' 또는 '지문학'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의 지리 교육 현장과 학문 체계에서 사라진 시점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해당 용어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어 갔으므로 보인다.

자연지리의 다른 표현으로도 인식되었던 지문은 1910년 즈음 일본 문부성의 중등학교 지리과 교수요목에서 해당 과목명이 사라진 후에도, 인문지리 분야의 계통지리가 더해진 '지리학통론'이나 '지리개설' 등의 과목을 통해 고유의 자연지리적 특성, 즉, 지구(후성) 특성 - 육지 - 대기 - 바다 - 생물로 이어지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리개설(자연지리개설, 인문지리개설) 교수요목의 구조와 내용은 큰 변화 없이 해방 직후의 '자연환경과 인류생활'로 이어진다. 이후 제1차 교육과정기가 시작되면서 과거 박물학이나 과학적 속성이 강한 부분은 지학, 즉 현재의 지구과학으로 이동하거나 배제되었지만, 지문학 내용의 많은 부분이 현재의 지리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해방 이후의 지리과 중등교육의 첫 단추가 일본의 지리교육과 많은 부분 오버랩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이 글의 작성을 위해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대상이 우리나라의 지리교육사인지 일본의 지리교육사인지가 계속 혼란스러웠고,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저술한 지리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안타까웠던 부분이다.

지문학 또는 이후 지문학의 전통이 반영된 구(舊) 자연지리 체제가 갖고 있었던 장점은 '지구'를 하나의 체계 즉 시스템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학문 영역이 전문화되기 이전의 고전적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합사회처럼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것을 선호하는 현대적 시각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다. 특히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환경이 중시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역사적 변혁기에 지문학이라는 새로운 지식이 품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시각은 여전히 중요하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따라서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가 과거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못지 않은 현재에도 그 의미와 역할을 다시 돌아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註

- 1) 다만, UNESCO의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에 대한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과 같은 정의에서 ‘지문학’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c%86%8c%ea%b0%9c/%ec%84%b8%ea%b3%84%ec%9c%a0%ec%82%b0%ec%86%8c%ea%b0%9c/>). 여기서 ‘지문학적’의 원어는 ‘physiographical’이다(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https://whc.unesco.org/en/conventiontext>).
- 2) eBook의 독서 진행률에 따른 것으로 책 전체의 볼륨을 1,574쪽으로 설정했을 때 109쪽에 해당함.
- 3)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2\\_0050\\_004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2_0050_0040))
- 4) 국립인천일어학교가 1909년 5월 국립인천실업학교로 변경되면서 상업학교로 개편되었으며(이중성 등, 1998:511), 이후 1912년 인천공립상업학교, 1951년 인천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인천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incheon.icehs.kr/sub/info.do?m=0102&s=incheon>).
- 5) 실업학교령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實業學校本科의學科目은實業에關한科目及實習以外에修身、國語及漢文、日語、數學、理科로함但數學、理科를關한거나又地理、歷史、圖書、法規、統計、測量、體操及其他學科目을加함을得함...”과 같이 일반 교과목으로서의 지리 과목을 각 실업학교에 개설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실업학교 학과 과정 및 시수 편성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실업학교령시행규칙의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를 보면, 상업학교 이외의 농업과 공업학교 학과목에는 ‘지리과’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 6)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商業에屬한學校의實業에關한科目은商業地理、商業簿記、商業文、商業算術、經濟、商品、商事要項、商業英語等으로함.…”(학부령 제1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 7) 인천실업학교에서는 기후, 토양, 광산물 등 자연

- 지리적 성격이 강한 내용은 지문에서, 이외의 산물과 지리적 내용은 지리과의 본국지리와 외국지리를 통해 가르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업지리 과목을 일반적인 지리과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당시 일본의 상업학교 학과 과정표에서도 쉽게 확인된다(熊本縣立商業學校, 1907:8; 静岡商業學校, 1908:32). 다만, 이과에 지문 과목을 배치하는 인천실업학교와 같은 사례는 당시 일본과 대한제국 모두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국권 피탈 이후에 반포된 조선총독부의 상업학교 관련 규칙에서도 지리과 과정으로는 ‘본방 및 외국지리’만을 제시하고 있다(실업학교규칙, [시행 1911. 11. 1.]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1911. 10. 20., 제정]).
- 8) 당시 일본의 상업지리 교과서는 ‘일본상업지리’, ‘외국상업지리’ 등과 같이 2권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반적인 틀은 지문과 지리로 이루어진 일반 중등학교 지리과의 교과 편제와 유사하지만, 산물의 분포나 유통 등 상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부분이 강조되는 특성이 나타난다(宮田千年, 1902; 普及舎, 1903:86-87; 中野觀象, 1904). 단, 실업학교령(칙령 제29호, 1899. 2. 7.; 관보 제4678호) 반포 이후의 ‘상업지리’라는 과목명은 상업학교에 대한 문부성 차원의 규정(상업학교규정, 문부성령 제10호, 1899. 2. 25.; 관보 제4693호)이 아닌 설립 주체 수준의 규정 또는 학칙에서 확인되고 있다(熊本縣立商業學校, 1907:6-19; 静岡商業學校, 1908:28-42).
  - 9) 학부편집국의 교과용도서일람(1910. 7.) 참조. 해당 일람은 국권 피탈 직전(1개월 전)의 교과용도서 관련 자료로 본문의 표 8에 포함된 도서들이 학부의 검정 및 인가를 받은 지문학 관련 교과서들이다. 일람에 따르면 검정 교과서들은 일반 사립학교에서 활용할 때 별도의 인가 요청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인가’ 도서의 경우는 최초 사용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대신의 별도 인가가 요구되었다.
  - 10) 이면우·최승언(1999), 이인순(2011)에서는 이외에도 김동규(1909)의 ‘정선지문교과서’를 당시 사용된 지문학 교과서로 소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해당 도서가 학부편집국의 교과용도서일람(1910. 7.)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목차 등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 11) 민대식의 ‘신찬지문학’, 윤태영의 ‘중등지문학’ 등에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표현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면우·최승언(1999), 이인순(2011)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12) 小藤文次郎(1889)의 연구는 Ratzel의 인류지리학(1882) 제1편의 1장과 2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초역(抄譯)을 하고, 여기에 본인의 생각 일부를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田村百代(1978)는 당시 小藤文次郎 연구의 의의를 종래 지리서(地誌)를 의미)가 여러 지명물산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 인문에 비해 자연 현상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Ratzel의 주장을 기반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찾고 있다.
  - 13) 학생들에게 지명물산 관련 지식의 암기를 요구하는 지리과의 모습은 이 시기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까지도 이어지는 일본 지리교육의 주요 문제이다(近藤裕幸, 2005:1). 우리나라 지리교육도 아직까지 이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는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 14) 山崎直方の 1906년 자료는 해당 연도 4월에 문부성 검정을 받은 중학교용 ‘普通教育 地理學教科書-地理學通論’의 서문에 해당한다. 山崎直方の 1906년 교과서는 1903년에 처음 발행된 것의 정정(訂正) 4판으로, 山崎直方は 서언에서 지문 부분은 당시(1902) 교수요목을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인문지리 부분은 아직 교수요목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교사들이 관련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교과서는 전술한대로 1906년 문부성 검정을 통과했으며, 인문지리 부분 목차는 1910년 사범학교 및 1911년 중학교의 ‘인문지리개설’ 교수요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 15) 한국인 대상 중등교육기관은 대한제국 기의 고등학교와 고등여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로 변화되었다.
  - 16) 조선총독부학무국의 기인가교과용도서일람(1925. 4. 부터 - 1927. 7. 까지); 인가교과용도서일람(1931. 10. 부터 - 1932. 9. 까지); 인가교과용도서일람(1932. 7. 부터 - 1933. 8. 까지)에서 확인함.
  - 17) 조선총독부학무국 인가교과용도서일람(1932. 7. 부터 - 1933. 8. 까지)에서 확인함.
  - 18) 해당 규칙 제9조에서 ‘지리개설에서는 자연지리

- 및 인문지리의 개요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문부성령 제2호, 1931. 1. 10.; 관보 제1207호).
- 19) 1942년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을 전제한 '内閣官房記録課 編(1942)'에서 확인함.
- 20) 표 16의 '新制地理學通論' 목차와 해당 표의 주석 내용 참조
- 21) 지리학통론은 '지문', '지문학', '지리학개론' 등으로 시대에 따라 호칭이나 내용이 바뀌었다(近藤裕幸, 2015).
- 22) 1938년 조선총독부령 제25호, 제26호에 제시된 지리 과목 정의는 이전 중등학교 교수요목을 개정한 1937년 일본 문부성 훈령 제9호(중학교교수요목), 제10호(고등여학교교수요목)에 제시된 것과 유사하며, 쓰인 용어와 문장 또한 상당 부분 일치한다. 해당 훈령의 교수요목에 대해 일본의 地學史編纂委員會·東京地學協會(2000)에서도 국가주 의적 색채가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 강순돌, 2005,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지리학 이해: 1905-1910년의 학보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0(6), 595-612.
- 강창숙, 2019, "미군정기 초급중학교 『우리나라 지리』 교 수요목과 검정교과서 내용체계의 특징, 한국지리환경 교육학회지" 27(2), 37-58.
- 권정화, 1990, "최남선의 초기 저술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관 삼 개화기 육당의 문화운동과 명치 지문학의 영향" 응용지리, 13, 1-34.
- 권혁재, 1982,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한국교육사연구회, 한국교육사연구의 새방향, 집문당, 248-262.
- 남상준, 1992, "한국 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한지리학회, 2016, 「대한지리학회 70년사(1945-2015)」, 서울: 푸른길.
- 안중욱, 2016, 「지리교육과정의 기원을 읽다」, 서울: 푸른길.
- 유봉호·김용자, 1998, 「한국 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 서

울: 교학연구사.

- 이면우, 1997, "한국 근대교육기(1876-1910)의 지구과학교 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면우·최승언, 1999, "한국 근대교육기(1876-1910) 지문학 교과" 한국지구과학학회지, 20(4), 351-361.
- 이인순, 2011, "신찬지문학의 내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성·강경중·장명희, 1998,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 장보웅, 1971, "일본 통치 시대의 지리교육" 군산교육대학논 문집, 4, 83-117.
- 한용진·강명숙·김대식·이명실·정미량, 2010, 「우리나라의 1945년 이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연구보고 RRC 2010-7-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近藤裕幸, 2005, "わが国旧制中学校の地理教育成立過程にお ける地理学研究者の役割 地理教科書の分析を通して" 早稲田大学博士論文.
- 近藤裕幸, 2015, "明治後期と昭和前期に用いられた師範学校 と旧制中学校の地理教科書の内容比較" 人文地理, 67(4), 24-39.
- 金田植太郎, 1891, "普通教育に於ける地理學の位 地を論ず" 地學雜誌, 3(5), 249-256.
- 金田植太郎, 1893, "地理學の分科" 地學雜誌, 5(1), 7-12.
- 山崎直方, 1902a, "政治地理に就て" 地學雜誌, 14(10), 679-683.
- 山崎直方, 1902b, "政治地理に就て" 地學雜誌, 14(11), 737-749.
- 山崎直方, 1903, "地理學現今の位置" 東洋學藝雜誌, 20(261), 252-259.
- 石橋五郎, 1908, "學及其分科の名稱に就きて" 歴史地理, 11(1), 47-51.
- 小藤文次郎, 1889, "地學雜誌發行二付地理學ノ意義ニ解釈ヲ 下ス" 地學雜誌, 1(1), 1-3.
- 小川琢治, 1904, "人生に及ぶ地理學的景響" 地學雜誌, 16(1), 53-56.
- 矢島道子, 2008, "地學教科書に脈々と流れているもの-「地 文學」の精神-" 地質學雜誌, 114(4), 163-169.
- 田村百代, 1978, "小藤文次郎によるドツ地理學の導入-「地學 雜誌發行二付地理學ノ意義ニ解釈ヲ下ス」とその原典" 地理學論叢, 51(5), 406-415.
- 中川浩一, 1975, "明治の地理學史-20・30年代を中心にして-" 人文地理, 27(5), 35-49.
- 地學史編纂委員會·東京地學協會, 1993, "西洋地學の導入(明

治元年-明治24年)<その2>,” 地學雜誌 102(7), 878-889.  
 地學史編纂委員會·東京地學協會, 2000, “日本地學の展開(大正13年-昭和20年)<その1>,” 地學雜誌 109(5), 719-745.  
 喜田貞吉, 1907, “地理學に關する余輩の見解” 歴史地理 9(6), 435-443.  
 Geikie, A., 1877, *Elementary lessons in Physical Geography*, London: Macmillan and Co.  
 Ratzel, F., 1882, *Anthropo-Geographie, oder Grundzüge der Anwendung der Erdkunde auf die Geschichte*, Stuttgart: J. Engelhorn.

<교과서 및 자료>

교육부, 2022,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2022. 12. 22.).  
 김동규 편, 1909, 「정선지문교과서, 경성: 의진사.  
 문교부, 1948,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  
 민대식 편술, 1907, 「신찬지문학, 경성: 휘문관.  
 윤태영 편저, 1907, 「중등지문학, 경성: 보성관.  
 조선총독부, 「교과용도서일람 개정 9판(1915. 12.)」.  
 조선총독부, 1914, 「지문학교과서(1922 증쇄본)」.  
 조선총독부학무국, 「기인가교과용도서일람(1925. 4.부터 - 1927. 7.까지)」.  
 조선총독부학무국, 「인가교과용도서일람(1931. 10.부터 - 1932. 9.까지)」.  
 조선총독부학무국, 「인가교과용도서일람(1932. 7.부터 - 1933. 8.까지)」.  
 학부편집국, 「교과용도서일람 증보 제5판(1910. 7.)」.  
 宮田千年, 1902, 「最近日本商業地理, 東京: 成美堂, 京都: 松田書房.  
 内閣官房記録課 編, 1942, 「現行法令輯覽」, 7(15), 學事, 帝國地方行政学会(1930-1942).  
 普及舎, 1903, 「中等教育実業教育教科用書出版目録, 東京: 普及舎.  
 山崎直方, 1906, 「普通教育 地理學教科書-地理學通論(訂正 4版)」, 東京: 開成館.  
 山崎直方 著·辻村太郎 補訂, 1931, 「新市地理學通論(訂正 6版)」, 東京開成館.  
 山崎直方 著·辻村太郎 補訂, 1935, 「新市地理學通論(訂正 8版)」, 東京開成館.  
 山上万次郎, 1900, 「近世地文學教科書, 東京: 富山房.  
 三省堂編輯所 編, 1941, 「最近地理概説 中等(改訂版・修正3

版)」, 東京: 三省堂.  
 熊本縣立商業學校, 1907, 熊本縣立商業學校一覽(明治39年度).  
 静岡商業學校, 1908, 静岡縣市立静岡商業學校一覽(明治41年).  
 中野觀象, 1904, 「最新外國商業地理, 東京: 実業之日本社.

<법령, 고시, 학칙>

- 조선 및 대한제국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개정)(학부령 제2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9호, 1908. 4. 7.; 관보 제 4044호, 1908. 4. 10.)  
 고등학교령(칙령 제42호, 1906. 8. 27.; 관보 제3546호, 1906. 8. 31.)  
 고등학교령시행규칙(개정)(학부령 제4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고등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1호, 1906. 8. 27.; 관보 제 3548호, 1906. 9. 3.)  
 관립인천실업학교학칙(학부고시 제8호, 1909. 8. 30.; 관보 제4468호, 1909. 9. 1.)  
 관립평양고등학교학칙(학부고시 제16호, 1909. 10. 20.; 관보 제4513호, 1909. 10. 25.)  
 관립한성고등여학교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 시수표(학부고시 제4호, 1908. 6. 1.; 관보 제4090호, 1908. 6. 3.)  
 관립한성고등학교학칙(학부고시 제15호, 1909. 10. 20.; 관보 제4513호, 1909. 10. 25.)  
 사립학교학칙기재례(학부고시 제6호, 1908. 8. 28.; 관보 부록, 1908. 9. 1.)  
 사범학교령시행규칙(개정)(학부령 제3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사범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0호, 1906. 8. 27.; 관보 제 3547호(1906. 9. 1.)  
 실업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1호, 1909. 7. 5.; 관보 부록, 1909. 7. 9.)  
 한성사범학교규칙(학부령 제1호, 1895. 7. 23.; 관보 제121호, 1895. 7. 24.)
- 조선총독부  
 고등보통학교규정[시행 1922. 4. 1.] [조선총독부령 제16호, 1922. 2. 20., 제정]  
 고등보통학교규정[시행 1937. 9. 1.] [조선총독부령 제131호, 1937. 8. 30., 일부개정]

고등보통학교규칙[시행 1911. 11.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1. 10. 20., 제정]

고등보통학교규칙[시행 1920. 1. 1.] [조선총독부령 제187호, 1919. 12. 1., 일부개정]

고등보통학교규칙[시행 1921. 4. 11.] [조선총독부령 제54호, 1921. 4. 11., 일부개정]

고등여학교규정[시행 1922. 4. 1.] [조선총독부령 제10호, 1922. 2. 16., 제정]

고등여학교규정[시행 1937. 6. 1.] [조선총독부령 제66호, 1937. 5. 21., 일부개정]

고등여학교규정[시행 1938. 4. 1.] [조선총독부령 제26호, 1938. 3. 15., 전부개정](관보 호외, 1938. 3. 15.)

고등여학교규정[시행 1943. 4. 1.] [조선총독부령 제59호, 1943. 3. 27., 제정]

실업학교규칙 [시행 1911. 11. 1.]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1911. 10. 20., 제정]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시행 1922. 4. 1.] [조선총독부령 제14호, 1922. 2. 17., 제정]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시행 1937. 6. 1.] [조선총독부령 제68호, 1937. 5. 21., 일부개정]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시행 1911. 11. 1.] [조선총독부령 제112호, 1911. 10. 20., 제정]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시행 1920. 1. 1.] [조선총독부령 제188호, 1919. 12. 1., 일부개정]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시행 1921. 4. 11.] [조선총독부령 제55호, 1921. 4. 11., 일부개정]

중학교규정[시행 1922. 4. 1.] [조선총독부령 제13호, 1922. 2. 17., 제정]

중학교규정[시행 1937. 6. 1.] [조선총독부령 제67호, 1937. 5. 21., 일부개정]

중학교규정[시행 1938. 4. 1.] [조선총독부령 제25호, 1938. 3. 15., 전부개정](관보 호외, 1938. 3. 15.)

중학교규정[시행 1943. 4. 1.] [조선총독부령 제58호, 1943. 3. 27., 제정]

\*상기 조선총독부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참고하였음.

경북공립고등여학교학칙(관보 제3552호, 1938. 11. 19.)

경북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3549호, 1938. 11. 16.)

경성(鎭城)공립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1281호, 1931. 4. 16.)

경성사범학교학칙(관보 제4176호, 1926. 7. 21.)

경주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3599호, 1939. 1. 20.)

나남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1281호, 1931. 4. 16.)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3256호, 1937. 11. 20.)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4085호, 1926. 4. 5.)

대구공립중학교及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200호, 1927. 8. 27.)

대구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3549호, 1938. 11. 16.)

신의주공립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1275호, 1931. 4. 9.)

신의주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4106호, 1926. 4. 29.)

신의주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1275호, 1931. 4. 9.)

신의주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1619호, 1932. 6. 2.)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4170호, 1926. 7. 14.)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3212호, 1937. 9. 28.)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1720호, 1932. 9. 29.)

평양공립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1363호, 1931. 7. 22.)

평양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학칙(관보 제708호, 1929. 5. 15.)

평양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1373호, 1931. 8. 3.)

평양공립중학교학칙(관보 제2176호, 1934. 4. 14.)

포항공립고등여학교학칙(관보 제3736호, 1939. 7. 5.)

• 일본

고등여학교교수요목(문부성 훈령 제2호, 1903. 3. 9.; 관보 제5901호)

고등여학교규정(문부성령 제3호, 1943. 3. 2.; 관보 제4838호)

고등여학교교수요목(고등여학교及실과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0호, 1937. 3. 27.; 관보 제3068호)

고등여학교교수요목(고등여학교及실과고등여학교교수요목, 문부성 훈령 제12호, 1911. 7. 29.; 관보 제8431호)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문부성령 제4호, 1901. 3. 22.; 관보 제5312호)

사범학교교수요목(문부성 훈령 제13호, 1910. 5. 31.; 관보 제8080호)

사범학교규정(문부성령 제12호, 1907. 4. 17.; 관보 제7136호)

상업학교규정(문부성령 제10호, 1899. 2. 25.; 관보 제4693호)

실업학교령(칙령 제29호, 1899. 2. 7.; 관보 제4678호)

중학교교수요목(문부성 훈령 제3호, 1902. 2. 6.; 관보 제5575호)

중학교교수요목(문부성 훈령 제5호, 1931. 2. 7.; 관보 제1231호)

중학교교수요목(문부성 훈령 제9호, 1937. 3. 27.; 관보 제3068호)

중학교교수요목(문부성 훈령 제15호, 1911. 7. 31.; 관보 제8432호)

안종욱

중학교령시행규칙(문부성령 제2호, 1931. 1. 10.; 관보 제 1207호)

중학교령시행규칙(문부성령 제3호, 1901. 3. 5.; 관보 제5298호)

**<웹사이트 및 웹페이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인천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incheon.icehs.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물: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생산 학칙 제정 및 변경 신청 관련 문서 기록,  
<https://theme.archives.go.kr/next/government/view>  
Main.do (해당 학교명은 본문 표에 기재함)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https://whc.unesco.org>

교신 : 안종욱,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메일: ahncu@kice.re.kr)

Correspondence: Chong Uk Ahn, 27873, 8 Gyohak-ro, Deoksan-eup,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Email: ahncu@kice.re.kr)

투고접수일: 2023년 2월 20일

심사완료일: 2023년 3월 6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17일